

밀알 한 알

| 김홍호 |

우리의 본성을 본다(見性)는 것은 유한 속에서 무한을 발견하는 것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요한복음 12:20~26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늘은 우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곧 새가 와서 먹고 말았다. 어떤 씨는 또 돌밭에 떨어졌다. 조금 사는 듯했는데 그만 말라 죽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런데 꽤 컸는데 그만 숨이 막혀서 죽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 옥토에 떨어진 씨가 백 배도 천 배도 맺힌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옥토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밀알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야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요. 밀알은 땅에 떨어져야, 그 땅을 지금 옥토라 그릅시다, 백 배, 천 배나 되는데,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야 되느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밀알에 대해서 땅이라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엇이 되겠어요? 하늘이지요. 또는 하나님이라고 해야겠지요. 우린 어디에 떨어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떨어져야지요. 하나님이 아래에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위에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말이 우습지만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의 머리를 하늘에 가져다 심는 거지요.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지요. 우리 사람의 뿌리는 머리카락이에요. 나는 뿌리가 줄었습니다. 여자는 뿌리가 좀 더 많아요. 사람은 이 머리를 하나님 마음에 갖다 심는 거지요. 하나님 가슴, 하나님 마음에 갖다 심으면, 우리도 백 배, 천 배 되는 거지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슴에 우리의 머리를 갖다 심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무한眞無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악무한惡無限이지요. 밤낮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쁨이 없는 거고, 평안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는데 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를 하나님께 갖다 심어야 편안한 거지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심으면 진무한이 되지만 그걸 못 심으면 악무한이 되고 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심었다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말로도 쓸 수가 있지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이든 무어든 하나님께 갖다 심어 놓았다고 느껴지면, 그걸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지요.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팍이라 해도 좋고, 하여튼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 매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와 갖다 걸어 맨다고 하는 것을 보통 한문자에서는 관계라는 말로 써요. 關係 자는 門 門 속에 실 사 자가 두 개 있어요. 또 계係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인 변에 한 일 자 아래에 실 사 자가 있어요. 실이나 밧줄을 갖다 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곧 무엇과, 무엇과 갖다 맨 거라 이거지요.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서두에 나왔던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관계다.” 관계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비끄러맨 것”이고, 밀알 한 알로 말하면 “땅에 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가 생기는 거지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계라는 거지요. 인간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 역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경우엔 나와 내 아들, 내 아내, 집안 친척들, 친구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모든 관계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 또 있겠어요? 며칠 전에도 결혼식 주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한 해고 두 해고 있다는 찾아와서 이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는 거지요. 난 이혼식까지 해주려고 한 건 아닌데, 와서는 자꾸 이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더 살아 보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와서는 아,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합니다. 사람이 혼자야 살지 못하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이니깐 남과 같이 사는 건데, 남과 같이 산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지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면 관계라는 거고,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남과 같이 사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인륜人倫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윤리학이라는 윤倫 자 알지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간추려서 다섯 가지로 추려놓았어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지요. 그 다섯 가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럼 다섯 가지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이상적인가.

첫째 조건은 관계라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로 비끄러맨 것이 끊어지면 안 되지요. 관계란 걸려 있어야지요. 둘째 조건으로는 막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 조건으로 거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거북하다거나 어색하다거나 무언지 그런 거 말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은, 관계는 영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관계라는 말 대신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썼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지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관계는 영원하다. 그리고 막히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키에르케고르의 말로는 “무한하다”, “뚫려야지 막히면 안 된다” 그리고 “어색하다거나 거북하지 않아야 한다.” 그건 요즘 ‘자유’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즉 영원과 시간, 필연과 자유, 유한과 무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는 영원해야 되고, 무한해야 되고, 자유로워야지, 만일 끊어진단가, 막힌단가, 어색하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가 영원해야 하고, 무한해야 합니다. 또 아내와의 관계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어색하다든가 막힌다든가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내 아내, 형제, 아들 다 마찬가지지요. 그 관계가 잘 되어 가야 정말 행복한 거고, 그것이 잘못 되어 가면 불행한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마주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관계가 아주 영원하고 무한하고 자유로워야지, 나를 보는 것이 어색하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요.

결국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원과 무한과 자유가 아주 이상적으로 실현되었다 하는 것을 동양사람들은 다섯 말로 표현했어요. 부자유친父子有親의 ‘친’이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색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막힌 것도 없다. 끊어진 것도 없다. 아주 좋다”는 말이지요. 좋다할 때는 ‘친’이라는 말로 표시했어요. 동양 사람들 참 지혜롭지요.

그리고 장유유서長幼有序的 ‘서’ 자는 질서가 정연한 거지요. 또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의’ 자와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신’ 자, 그리고 부부유별夫

유한과 무한이 합쳐질 때 이것이 정신이요, 유한과 무한이
합쳐진 것은 또한 진무한입니다. 유한과 무한이 합쳐질 때에 그게 합이지,
유한과 유한이 합쳐지면 합이 못 된다는 거지요.

婦有別의 ‘별’ 자, 그런데 요새는 부자유친이 안 되고 무엇이랴 그럴까
요. 유원有遠쯤 될까요. 아주 멀어졌어요. 또 부부유별이 아니고 부부
유착쯤 되었어요. 찰카닥 달라붙었어요. 아주 제일 유착된 사람들이
아마 미국사람일 거예요. 미국사람들 공원에 가 보면 남녀가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맨 처음에 미국에 가 보니까 그게 정말 보기에 흥합디
다.

그런데 그렇게 유착한 결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뭇인가. 캘
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백 명 앞으면 50명쯤이 이혼했어요. 2대 1이에
요.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면 “너 몇 번째 결혼하는 건가?” “여덟 번째
결혼하는 거다”, “열두 번째 결혼했다” 그러니까 유착한 결
과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요새 사람들은 부부유별이 아니라 부부유착夫婦有着입니다. 봉우유
용朋友有用이지, 봉우유신이 아니에요. 이용해 먹고 만다 이거지요.
또 군신유의가 아니라 군신유부君臣有附예요. 아부하고 말지요. 그 속
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부 관계가 있는 거지요 장유유서
가 아니라 이제 장유유절長幼有節이지요. 끊어질 절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친親이요, 별別이요, 서序요, 의義요,
신信인데 그것이 지금 다 깨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인간관계가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이 인간관
계를 바로 잡아야 그것이 사람이지, 그것이 나지, 이 인간관계를 바로
잡지 못하면 나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인간관계를 바로 잡

을 수 있는 것이 정신이지, 인간관계를 바로 잡을 수 없으면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정신이지요.

다시 변증법이라는 데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를 바로 잡느냐 그럴 때 헤겔은 변증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변증법이라는 말은 정과 반이 합쳐진 것이지요. ‘정正’은 키에르케고르의 말로는 ‘유한’이라는 말이고, ‘반反’은 ‘무한’이라는 말입니다. 유한과 무한이 합쳐질 때 이것이 정신이요, 유한과 무한이 합쳐진 것은 또한 진무한입니다. 유한과 무한이 합쳐질 때에 그게 합이지, 유한과 유한이 합쳐지면 합이 못 된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무한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이니까, 무한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제일 좋은 예로, 공자孔子的 제자 가운데 안자顔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공자를 이렇게 평했어요. “난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그저 한없이 높고 높아서 끝이 없다.” 자기 자신이 공자를 쳐다보니까 마치 산 같아요.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하늘 같이 되고 말지요. 이게 뭐냐 하면 안자가 어떻게 해서 안자가 되었나. 공자를 볼 때 무한이 되고 말았어요. 공자를 볼 때 무한이 되면 안자는 안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요령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내 아내를 무한으로 볼 건가. 어떻게 내 친구를 무한으로 볼 건가. 어떻게 내 선생님을 무한으로 볼 건가. 결혼하고 며칠 있다가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 처음 결혼하고는 상대방이 무한인 줄 알았는데, 무한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인데, 당신이라는 당자는 마땅할 당當 자고, 신은 몸 身 자고, 마땅 당 자는 이상적이라는

말이고, 몸 신 자는 존재란 말이지요.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 당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당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보” 이렇게 되거든요. 곧 당신이 변해서 여보가 되고 마는 거지요. 즉 무한인 줄 알았는데 며칠 두고 보니까 유한 이더라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유한과 유한은 합이 못 되는 거지요. 합이 못되면 미국 사람들처럼 솔직하면 곧 이혼하고 마는 거지만, 솔직도 못하면 이혼도 못하고 끌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혼을 몇 사람이나 했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다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에 대해서 무한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럴 때 유한이라 생각했다면 유한과 유한이 사는 거니까 남자와 남자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건 또 여자와 여자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냥 결혼한 것 같을 뿐이지, 실제로는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도 사실은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친 그럴 때는 자기가 유한이면 부부가 무한이 되거나, 부가 유한이면 자가 무한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안 되고, 유한이 되고 만니까, 결국 유한과 유한끼리 살게되는 것이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부자父子도 없는 거고, 부부夫婦도 없는 거고, 장유長幼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체하고 살아가려니까 괴롭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인가. 내 아내라고 할 때,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무한이라고 내가 보느냐 이거죠. 자기 아내 속에 있는 무한, 그걸 발견하면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지만 아내 속에 있는 무한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결혼했다고 볼 수 없지요. 그저 사는 거지, 동거하는 거지 결혼은 아니라는 거지요. 結 結 자란 실 사 변이예요. 실로 비끄러매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고, 무한한 거고, 자유로운 거란 말

이지요. 거기다 길할 길굿 자를 넣으면 결結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의 무엇 속에서 무한성을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 동양식으로 말할 때는 견성見性이란 말을 써요. 유한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발견한 거지요. 돌멩이가 유한인가 무한인가, 내 아내가 유한인가 무한인가 이거지요. 내 아내가 무한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결혼한 거고, 내 아내가 유한이다, 그렇게 되면 난 결혼 안 한 거다 이거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가지요.

그러니까 친구나 아버지나 형제 속에서 무한성을 발견했으면 관계가 성립이 된 거고, 무한성을 발견 못했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거지요. 무한을 무한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악무한이고, 무한을 유한 속에서 발견해야 진무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한성을 발견했으면 땅에 떨어진 거고, 무한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땅에 떨어지지 못한 것이지요. 땅에 떨어져야 진무한이요, 정신인 것입니다.(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1919-2012)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